

읍니다. 또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는 ‘말씀’ ‘이방인’ ‘교회’ ‘사도’ ‘믿는다’ ‘세례 준다’는 말들은 다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펩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사도적 교회가 귀한 발전을 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성장의 특징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와 전략

전 호 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부교수)

차

례

- | | |
|-----------------|--------------------|
| 1. 현대 교회의 성장 운동 | 2. 한국 교회 현황과 성장 원인 |
| | 3. 교회 성장의 개념과 전략 |

오늘날 이렇게 교회 성장의 문제가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은 1965년 풀러신학교에서 소위 ‘교회 성장학파’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파급된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만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풀러신학

* 본고는 본 연구소 주최 제2회 교회성장세미나에서 행한 강연을 옮긴 것임.

교의 교회 성장학에 어떤 반응을 표시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일체의 언급이 없는 이유는 먼저, 독일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 근래에 독일 교회 내부에 순복음식 부흥 운동의 오순절 교회가 성행하는 바 이는 독일 교회의 자구책(自救策)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적인 혹은 학문적인 차만심으로 볼 수 있는데 ‘모든 학문의 출발이 독일인데 미국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아울든 이 교회 성장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어 현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국 교회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교회 성장과 함께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 현대 교회의 성장 운동

(1) 풀러신학교의 교회 성장 원리

풀러신학교의 교회 성장학파의 성장 원리는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필자의 다른 글(월간목회 81년 11월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첫째, 가능성 사고를 발전시켜 전도에 우선권을 두라.

둘째, 평신도를 동원하여 전도 요원으로 활용하라.

세째, 사회 과학을 이용하라.

네째, 복음에 수용적인 사람(responsive people)들에게 우선적으로 전도하라.

다섯째, 개인보다 단체 위주로 전도하라.

여섯째, 효과적인 전략을 성장하는 교회를 통하여 배우라는 것입니다.

(2) George Peters의 삼투 전도(Saturation Evangelism) 성장 원리

달라스신학교의 조지 피터스의 삼투 전도 원리는 ‘마치 물이 어디에나 쭉 스며들듯이 이 세계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는 모든 전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꽂고루 일단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로서는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꽂고들 수 있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소위 삼투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 삼투 전도 성장의 7차원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예배, 성도의 교제, 성경적인 성장의 개념, 지역 전도, 환경에 대한 교회의 적응, 사회·정치를 기독교화하는 사회의 기독교화, 온 땅에 복음 전파 등인데 이 일곱 가지가 다 동원될 때 교회는 건전하게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다섯 가지의 전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otal mobilization for total Evangelization)

첫째, 총동원 전도입니다. 이는 오늘의 전도 일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단이 뒤진 것은 다른 교단에 비해 평신도 동원이라는 개념에서 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의 교회의 총동원 전도 주일과 다른데 그에 의하면 ‘전도에 성공하려면 한 지역에서 모든 신자들이 얼마나 동원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가령 부산에 있는 650개 교회가 일사적으로 동시에 총동원되어 교파를 초월하여 부산 복음화에 힘쓰는 것이 총동원 전도의 개념입니다.

둘째는 가족 단위의 전도 방법입니다. 창조의 단위인 가족은 신앙을 강화시키고 보존시키는 데서 또 공동 지역 복음화를 위해 큰 이점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가족 단위로 전도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에 대해 미국 교회도 이제는 환멸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 사회가 비록 핵가족 제도로 바뀌고 있지만 이 점에 착안해야 되리라 봅니다. 심방을 전 가족이 모인 저녁 시간을 통해 갖는 것도 권장할 일입니다.

세째로 복음의 삼투와 메시지의 적응을 위해 그룹 전도를 권장합니다.

네째는 문화에 대한 적용입니다.

(3) Robert Schuller의 ‘가능성 사고’ 목회

Robert Schuller는 교회 성장의 방해 요소를 첫째로 대교회가 나쁘다는 사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의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180명 내지 300명을 넘으면 담임 목사가 콘트롤 할 수 없다고 보고 3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교회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생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할 수 있거든 큰 교회를 만들도록 말합니다.

둘째는 한 목사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제거하라 입니다. 대교회를 만들 때 동시에 많은 목사를 기능별로 교육, 전도, 심방 등 모든 분야에 목사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도 제한된 딜란트를 주셨는데 각 분야별로 일을 잘하는 목사들이 협동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교회가 지역 사회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는 사상을 제거하라 입니다. 교회당이 약간 외곽 지대에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주차장이 중요치 않다는 주장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도 이제 큰 교회당을 지을 때는 주차장 시설을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다섯째 설교와 명령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는 명령자로서는 대교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교파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단 본부에 상회금을 바쳐야 한다는 사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정하고는 맞지 않으나, 교단 사상에 너무 지배될 때 그 교회는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교회의 대부분이 교파 의식을 초월해 있는데 어떤 교파의 틀에 매이게 될 경우 목사의 스케일이 적어지고, 스케일이 적은 목사가 큰 교회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Robert Schuller가 말하는 교회 성장의 성공적인 요소는 민중의 접근이 용이한 곳, 충분한 주차장, 훌륭한 안내, 봉사, 잘 보이는 곳, 부채를 두려워 않는 용기 등을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Robert Schuller는 ‘적극적 사고’ 혹은 ‘가능성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년 교인만 5,000명이 출석하는 팔림 교회(감리교·김 선도 목사 담임)의 경우는 이 적극적 사고로써 성공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된다’는 적극적 사고인데 그의 꿈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 교회를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Robert Schuller의 방법론은 궁정하지만 설교 이론은 분명히 성경파는 다릅니다. 그의 설교는 성경에 입각한 설교라기보다 심리학을 동원한 것이며 ‘하면 된다’는 노만·빈센트·필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것을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설교가 한국의 강단에 도입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래 「월간교신」에 선교사들의 한국 교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연재되고 있는데 유심히 읽어 보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 선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은 ‘한국 교회 강단에 이상 있다’는 것인데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점에서 약한 한국 교회에 로버트 술러의 사상이 도입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좌절한 청년들에게 인생 철학적인 면에서 ‘하면 된다’는 것을 주는 것은 유익하나 ‘하나님의 모든 일도 우리가 원

하고 우리가 하면 된다'고 함으로써 별씨 신앙적인 차원까지 신앙이란 것보다는 인간의 그 능력을 더 과대 평가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로버트 슬러의 설교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4) James Kennedy의 폭발 전도

그는 콜롬비아신학교 출신으로서 앞서 소개한 세 가지 교회 성장 운동 중 가장 건전하고 개혁주의 원리에 입각한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남 장로 교회의 소속이지만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을 한 장로교 목사로 보수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캐네디 목사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얻는 것은 대량 전도 혹은 가능성 사고를 도입해야 반드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개혁주의 입장은 취하면서도 20년 만에 200명에서 5,000명으로 끌어올린 세계의 모범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전진하고, 설교 또한 전진하면서 성공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James Kennedy의 폭발 전도의 원리는

- ①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 ② 목사와 평신도는 다같이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 ③ 목회자는 명수나 대가가 아니라 코치이다.
- ④ 훈련과 실습이 있어야 한다.
- ⑤ 한 영혼의 직접 구원보다 구령자 훈련에 진력하라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5) 세계의 대교회

세계적인 대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 회 명	신 자 수	좌 석 수
여의도 순복음 중앙 교회	150,000	8,000 ⁺
영 략 교 회	24,000	4,500
Brazil For Christ	8,000	25,000
Jotabeche 교회(감리교 순복음)(칠레)	80,000	1,600
Madureira(브라질 하나님의 성회)	40,000	*****

또한 1980년 통계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하몬드 제일 침례 교회로서 주일 출석 13,000명 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산재한 33만여 교회 중 2,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꼭 100개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70% 이상이 침례교 계통의 교회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교회는 달拉斯 제일 침례 교회인데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모이는 교회로서 수입이 약 720만 달러인데 한화로 약 50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2. 한국 교회 현황과 성장 원인

(1) 한국 교회의 현황

1980년 문공부 통계(교회 편람 참고)에 의하면 개신교 신자 7,180,627명(전 국민의 19.1%), 천주교 신자 1,321,293명(3.5%)이며 교회수는 개신교 21,243 교회, 천주교 2,342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약 850만 명의 인구 가운데 2,336,766명이 기독교 신자이며 9,472명의 교직자가 있고, 4,49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시민 4명 중 한 사람은 크리스챤이란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교단이 크려면 역시

교인들이 많은 곳에 진을 쳐야만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기가 많은 데 가서 그물을 쳐야만 많이 잡히게 되는 원리인 것과같이 한국의 대교단들이 큰 이유는 서울을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교단 정책에 있어서 서울을 도외시하고 대교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산의 경우는 서울과 매우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데 시내 816개 교회에 399,768명의 신자, 1,557명의 교직자가 있습니다. 인구는 서울의 반 정도이나 신자수나 교회수는 서울을 따를 수 없습니다. 25%의 서울 시민이 신자인 것과 대조적으로 부산의 경우는 10%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역에 따라 교회 성장의 양상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한국 교회의 형편입니다.

(2) 교회 성장의 원인

첫째, 도시화에 의한 성장입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 농촌 인구 특히 신자들이 도시로 많이 몰려들어 자연 증가가 가능했습니다.

둘째, 위기를 통한 성장입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교회는 잘 성장합니다.

세째, 요사이 서울 지역의 교회는 전도열이 대단한데 적극적인 전도는 교회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네째, 이는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교파와 교회의 경쟁 의식도 한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대개의 성장하는 교회는 교회 지도자의 자기 철학 혹은 비전이 있는데, 지도자의 지도력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섯째, 목회자들의 적극적이고도 열심 있는 목회도 뺄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한국 교회 성장의 특징

한국 교회 목회의 어떤 경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특이한 교회 운동을 보여줍니다.

먼저, 동질 단위의 교회 운동이 활발한 점입니다. 직업 단위로서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의료 선교 교회, 과학자 교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 단위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경상도 혹은 전라도 혹은 이북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출신 지역이 있는 것이 현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적극적 사고의 목회가 특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면 된다’는 열의가 대단한데 그것이 서서히 우리 교단에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어떤 과정 의욕은 ‘내 힘으로 하겠다’는 비신앙적인 것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는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한국적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 ‘한국적’인 측면은 축복 혹은 치유가 강조되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날 세계 제일의 교회는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 있지 않고 제3 세계에 있습니다. 한국, 브라질, 칠레 이 세 나라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불안과 문제가 함께 하는 사회인데 외체가 가장 많은 나라가 브라질이고 다음이 멕시코, 한국 순입니다. 각 나라의 최대 교회는 순복음식 교회인데 한국의 경우 순복음 중앙 교회의 조 용기 목사의 목회 기반은 ‘한국적으로 하라’는 토착적인 원리입니다. 필리핀 교회의 경우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신흥 교단이 있는데 1910년대에 시작한 아래 70년 만에 200년의 전통을 가진 천주교와 다른 교단을 물리치고 필리핀 교회의 3,4위 교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실제적으로 필리핀 국민의 어떤 기질을 맞추는 것에 주안

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1/3이 크리스챤인데 가장 성장하는 교회는 독립 교회로서 아프리카 서남부 지방에는 6천 개 이상의 독립 교회가 집중해 있습니다. 이 토착적인 원리는 그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기현상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회 건물의 대형화입니다. 충현 교회의 경우 건축 예산이 120억, 오디오 시스템 장치만 해도 10억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대형화 추세는 일반 매스콤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흥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파 의식을 초월하는 경향도 교회 성장의 한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4) 순복음 중앙 교회의 성장 분석

이 분석은 한 완상, 정 진홍 교수 등에 의해 몇 개월 동안 연구된 것으로 「한국 교회 성령 운동의 현상과 구조」(대화출판사 刊)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는 다분히 사회학적인 접근도 시도하고 있는 바 그 이유를, 먼저 공동체 의식(we-feeling)으로 봅니다. 다른 말로 어떤 집안적인 분위기를 준다는 것인데 구역 조직이나 설교 시간의 '아멘'을 통해 소외당하는 사회에서 '나를 알아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역할 감정(role-feeling)을 들 수 있는데 철저한 구역 조직을 통해(구역장은 월급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신자를 관리한다) 하나의 역할을 부여받고 여기서 교인들은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는 의존 감정(dependency-feeling)입니다. 조용기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는 것인데, 그 교회만 들어오면 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네째는 소망(hope-feeling)입니다. 조용기 목사 역시 '하면 된다'는 로버트 슬러의 사상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복음 중앙 교회의 특질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개인주의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이며, 감정주의, 체제 의존주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나타나는데 우리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너무 배타적인 민족주의 의식을 심어 주고 있다고 한 완상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5) 교회 성장의 전략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성장 전략은 부흥회식, 신도 관리의 철저, 만수, 신유, 방언, 입신 등 '성령 운동', 적극적인 사고 그리고 축복 신앙으로 요약되는데 각 교회를 성장시키는 부정적인 성장 원리는 다음 일곱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적극적 사고를 하라. 죄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둘째, 한국적으로 하라.

세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되자 마라.

네째, 장로의 권한을 약화시켜라. 현재 서울 시내의 대부분의 신홍 대교회의 주일 낮 목회 기도는 목사가 인도하고 있는데 장로는 현금 기도와 성경 봉독을 맡고 있다.

다섯째, 교회당을 잘 지으라.

여섯째, 버스를 많이 활용하라.

일곱째, 선전을 많이 하되 특히 목사를 선전하라 등입니다.

(6) 오늘의 교회 성장의 문제점

지금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도전과 시련에 부딪쳤습니다. 일반 매스콤은 한국 교회

의 외관주의, 선전주의를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1910년대 말의 한국 교회와 같은 현상이 많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당시 이 광수는 한국 교회 교역자의 지적인, 인격적인 수준 저하를 헐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1910년대 한국 교회가 1900년대의 부흥 운동에 의해 본 궤도에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일본의 탄압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판을 받았던 시기이며 쇠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독립 운동과 더불어 교회가 한 5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의 왓스만 목사가 1933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문제를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 천명했는데, 1919년부터 25년까지 교회가 독립 운동과 더불어 성장했고 1926년부터는 다시 쇠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910년대 말에 교회는 교회 밖의 지성인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교회의 사회적 리더십, 청년들을 지도하는 능력, 목회자들의 지적 능력, 교육적인 수준 등의 문제를 가지고서 비판을 해 온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느냐를 알아보면 신학교의 문제는 지도력에 대한 비판으로 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서구의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따른 그 물량주의의 고도 성장에 따라 춤추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속을 따르지 말라고 강조하면서도 교회는 자본주의적인 외형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슬러 목사가 크리스탈 사석이라는 유리로 교회당을 지을 때 나타난 반응인데 미국 자본주의, 성공 위주의 대표적인 산물이 로버트 슬러의 유리 교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덕적인 것에서 세속을 따라가는 것이 잘못이고 죄라면 자본주의, 물량주의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19에 바벨론의 사치와 부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망했는데 이는 자본주의를 무조건 따라가는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3. 교회 성장의 개념과 전략

(1) 성경의 성장 개념

먼저,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언약의 자손들이 땅에 충만하라(창 1:28)

둘째, 아브라함을 통한 구약 교회의 시작

세째, 이스라엘은 이방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레 26:45; 시 98:2; 갤 20:9)

네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확산(말 1:11; 사 65:1; 사 2:3; 속 14:16)

다섯째, 다수가 아닌 ‘남은 자’의 구원 사상(사 1:9; 10:20; 11:11; 렌 23:3)

여섯째, 하나님에 도우심(겔 11:17; 20:41; 39:27; 시 87:5, 6)

이처럼 구약에는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에게 신실한 백성이 누구냐는 문제로 끌이 남니다.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성장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는 구약의 연속성으로서 예언의 성취요, 성령의 결과며(행 2장), 전도에 의한 양적인 성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도들이 한 몸의 의식을 가지는 교제적인 성장, 그리고 선교를 통한 지역적인 확장, 자기 교회뿐 아니라 개척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해외 선교를 통한 성장, 내적인 성장(영적 성장 액 3:14-21)을 겸해 모든 양이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성장의 전략

이제까지 현대 교회의 성장 운동과 한국 교회 성장의 현황과 성장 요인의 분석, 그리고 성장 개념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본 바 이제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경적이며 능력 있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이나 지성인들의 비판은 설교가 오늘의 세속적인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능력 있는 설교는 전도와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적응력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목회자뿐 아니라 전 교회적인 기도이고,
세째는 바람직한 교회 교육입니다.

네째는 지도력인데 목회자의 이동이 심한 교회는 성장할 수 없읍니다. 미국에서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100 교회들의 대부분의 교회가 한 목회자가 10년 내지 20년 이상 장기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로버트 슬러 목사의 경우 1958년에 시작하여 1982년에 1만 명을 돌파했는데 한꺼번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고 15년이 지나서야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충현교회, 영락교회, 순복음 중앙교회의 경우 창설 멤버 그대로 있습니다. 전도사뿐 아니라 모든 부교역자가 자기 기능별로 장기 목회하는 교회가 안정이 있고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강단은 담임 목사가 직접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로 평신도 훈련을 조직적으로 해야 합니다. 청년회 집회나 학생 신앙 운동 수양회를 차원을 달리하여 훈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평신도는 교육적 훈련의 차원에서 모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포착해야하는데 위기를 통한 교회 성장을 잘 포착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도 주기가 있는데 1919~1925년까지 성장했으며 1960년도를 전후하여 그때 성장은 지난 60년 간을 능가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전후하여 조금 성장

했고 1976년에 와서 또 성장을 했는데 교회 성장에는 이처럼 5년 혹은 10년을 주기로 한 성장 주기가 있습니다. 이는 충현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959년까지 성장이 별로 없다가 1960년대에 넘어서면서 일약 성장했고 1960년대 말에 조금 침체되다가 1968년부터 급성장 했습니다.

오늘의 때를 놓치지 말자!

그리고 유능한 동역자를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기능에 의한 분담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 밖에 교회당의 시설과 주변 환경도 문제가 되며, 다원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이 많을수록 외향적인 교회여야 성장하며, 눈을 밖으로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교회 중심적인 교회 내향주의를 지양해야 하며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최선의 전략을 모아서 한국 교회가 건전하면서도 놀라운 성장을 하기를 바랍니다.